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몬(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그것은
지혜의 샘이기 때문에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로버트 브라우닝-

[제 1독서] 이사 42,1-4.6-7<또는 55,1-11>
 [화답송] 시편 29(28),1~과 2.3~과 4.3~과 9~10(◎ 11~)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 2독서] 사도 10,34-38<또는 1요한 5,1-9>

[복음 환호송]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마르 1,7-11

성가	8시 미사	입당 1	봉헌 218 54	성체 501 502	파견 479
	11시 미사	입당 1	봉헌 218 54	성체 501 502	파견 479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주님세례축일(1월 11일)		연중 제2주일(1월 18일)		연중 제 3주일(1월 25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승원루카	2구역:이주황요한	정애리스텔라	3구역:김미숙말가리다	정일환프란치스코	4구역:권창모미카엘
제 1 독서	최환준베네딕토	2구역:심태규미카엘	정일환프란치스코	3구역:이건호요한	채성일토마스	4구역:허순구라우렌시오
제 2 독서	최수영베네딕타	2구역:심승화헬레나	정영희글라라	3구역:문아영유스티나	정애리스텔라	4구역:허옥진파비올라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요즘 사는 세상을 접하다 보면 그다지 밝지만은 않습니다. 목판화가 이철수 님의 글 한 편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글과 관련된 그림도 있는 것인데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 시절 탓일까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습니다. 손은 여전히 목판을 새기고 있는데, 흘러가고 흘러오는 생각이 천천히 흐르는 탁류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많은 물 흐르다, 이렇게 겨울 깊어 광광 얼어버리고, 거기 어디 굳은 바위 위에 앉아 촘촘게 생을 누우치는 사람 있으면 이런 그림이 될까요? 건너 바위위에 묵은 탑 하나 서 있고. 답답해서 창을 엽니다. 찬바람 맞아도 시원해지지 않네요. - 목판화가 이철수.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밝히는 빛이란 저절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태워 밝혀야 하는 고난이 숨어 있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 중엔 빛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태워야 하는 고난이 두려워 빛이 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 빛을 향한 영원에 자신의 삶을 투신하여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신을 태우는 이 투신의 삶을 지닌 빛의 사람들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님의 세례를 이해해 봅니다. 공생활 시작의 의미에서의 주님의 세례는 다음의 성경 구절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루카 12, 50)

이미 당신의 세례로서 공생활의 출발은 수난과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투신하셨습니다. 세례는 수난과 죽음을 향한 투신이었습니다.

수난과 죽음을 자초한 모든 행적. 특히 당시의 제도와 율법, 율법학자나 바리사이, 대사제, 헤로데와 같은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며 무섭게 꾸짖는 행동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수난과 죽음은 최종적으로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서의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세례는 인류에게 빛을 주기 위한 투신의 세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두운 세상 안에 빛을 희망해보며 우리의 세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세례는 빛을 향한 투신의 세례로 거듭나고 있을까요? 하느님은 투신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학 마티아 신부
인천교구 상동 본당 주임

제1598호 주님세례축일 2015년 1월 11일
 아하, 그분이 대부모셨군요~~!! ^o^

대자녀	대부모	대자녀	대부모
박지선 라파엘라	이성연 베로니카	신우현 빈첸시오	신영철 요셉
이은자 마트로나	류숙자 유스티노	신현규 마태오	곽기성 유스티노
김영균 라파엘	정일양 안드레아	장재용 비오	구창희 미카엘
최순일 요셉	이동춘 바오로	윤장의 비오	지영남 요한
김옥준 마리아	유춘성 테레사	주봉진 요셉	지택근 도밍고
정승철 안드레아	설승진 토마스아퀴나스	주정희 마리아	지장숙 사비나
김수정 세라피나	채줄리 줄리아	최대연 다니엘	정병윤 아브라함
허희나 힐다	김경숙 로사리아	양천종 그레고리오	엄성용 그레고리오
윤성일 사도요한	이영기 마태오	최은순 루시아	고문순 마리아
김은혜 테레사	이자영 엘리사벳	이세호 요한	이기하 비오
이유지 비비안나	지장숙 사비나	노용례 소피아	전영립 아나타시아
이혜경 레아	윤지해 에스텔	강신호 요한	이인학 시몬
신병석 피델리스	이임상 베네딕토	정애리 스텔라	강혜경 마리안나
김다솜 아델라	이기희 베로니카	남금지 수산나	김정자 빅토리아
유진호 멜라니아	허옥진 파비올라	조상희 마리아	박호영 헬레나
송현오 이시도르	변귀태 성우안토니오	한일청 요한	부흥신 마티아
박진영 베드로	장찬호 안드레아	조기상 안드레아	김완기 막시밀리안
박상일 시몬	조현대 요한	조영순 엘리사벳	김정자 빅토리아
홍흥기 프란치스코	김정호 이나시오	한서연 수산나	구희용 엘리사벳
권철중 가롤로	이재우 야고보	조경호 프란치스코	김휘 안토니오
이지은 율리안나	이휘라 카타리나	황정기 율리안나	김정자 빅토리아
유혜선 마리아	정정식 분다	송인환 토마스	이건용 요셉
유한섭 바오로	이종규 미카엘	조미경 리디아	김영희 엘리사벳
유근아 헬레나	조상희 마리아	구천남 아릭스	이동춘 바오로
김남경 글라라	성영자 우술라	구해순 안나	이순덕 베로니카
윤종진 엘리야	이희열 발다살	이규주 시몬	양승환 안셀모
이기희 베로니카	조미경 리디아	이윤정 아네스	양인심 엘리사벳
송일란 베로니카	김미숙 말가리다	이기하 비오	최희종 베드로
양우선 세례자요한	한치용 요셉	이혜란 세실리아	최옥경 카타리나
강신욱 요한	지기재 벨라멧다	이상우 마티아	채인국 다니엘
양채림 프레데릭	정지문 바오로		이상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말씀의 향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미래에 대한 구상에 앞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일도 소중한 일일 것 같습니다.

가령 독서를 할 때 새로운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읽고 감동받았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 보는 일도 의미가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제 신앙이 무미건조하게 관습적으로 된다고 느끼면 첫영성체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북받쳐옵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알거나 성령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고 환희가 가슴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얼룩을 지우고 새 기쁨 안으로 들어서는 기분은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온몸에서 뜨거워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와라. 내가 변했다. 내 안에는 누구도 범치 못할 성령이 있다.’ 그런 마음의 힘까지 일어났습니다. 단연 으뜸은 기쁨과 행복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불행이나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남의 탓으로 돌리던 것에서 나의 탓으로 돌리고 용서를 비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세례를 받는 순간 제 기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본래의 제가 아니었기에 눈물이 온몸을 적셨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 폭풍 이름이냐? 풀잎 이름이냐? 뭐 바윗덩이 이름이냐?’ 하고 빈정거리는 정신의 건달에게 ‘그래요, 저 같은 혼의 노숙자에게 어떻게 주님이 손잡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감동이 컸습니다. 특석이 아니라 모든 군중과 함께 서 계시는 3등석에서 걸어 오시는 장면이야말로 ‘쿵!’ 하고 가슴을 내려치는 것

같았으며, 저 자신을 한량없이 낮추어야만 하는 신앙의 큰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 이라는 요한의 증언은 오만으로 뺏뺏한 허리를 굽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될 수 없다 해도, 속 썩이고 문제 발생만이라도 안하는 주님의 딸이 될 수 있기를 새해에도 간곡히 기도합니다. 저도 주님 마음에 드는 딸이고 싶은데, 내 생애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특석만을 노리고 3등석은 당연히 남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불충을 벗을 때 가능한 일일까요.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는 최초의 약속을 잊고서 감사보다는 구하는 것이 많아졌고 불평이 도를 넘습니다.

저를 낮추어야 주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는 기본 성경 가르침마저도 저는 모른 척 하려드립니다. 아닙니다. 처음엔 담벼락에도 주님이 계시리라 간곡히 엎드려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성호를 긋던 그때의 설렘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시 웃기를 여미는 새해 순간순간, 세례를 받는 영혼에게 하소서.

신달자 엘리사벳
시인

성경산책

성경공부! 읽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경은 구약(舊約)과 신약(新約)으로 구분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약(約)은 계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이란 말 그대로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의미입니다.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약과 신약으로 부릅니다.

성경은 모두 73권으로 구약은 46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책을 공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읽는 것입니다. 읽을 줄만 알면 배우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공부의 첫 시작도 ‘읽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 됩니다. 간혹 방안에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하면 소리를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 읽기를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하고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집중을 안 하고 읽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읽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이 닿는 곳 가까이에 성경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본당에는 화장실 벽면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그 말씀에 눈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치 표어처럼 자꾸 반복해서 보게 되면 성경 구절이 자연스레 외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글 성경의 경우, 한국 천주교회가 공용으로 출판하도록 주교회의가 승인한 성경이라야

합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다운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같은 곳에서도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 읽기가 재미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한 번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했지요. 이제 성경을 들고 한 번 읽어보세요.

허영업 마티아 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며 모두 ()권입니다. 구약 첫 권은 창세기이고, 신약의 마지막 권은 ()입니다.”

♥ 아래의 성경을 찾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노트에 써 보세요.

잠언 12,1-13,25 / 1요한 4,7-21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라이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1월 11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해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임레지나
	연	김중화	정데레사(해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해경)
	연	조상님/부모형제	윤사비나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배데레사(영옥)	김로사리아(경숙)
	생	정미카엘	정데레사
1월 13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86	210	-	296
헌 금	\$654	\$1,076	-	\$1,730

< 교무금 > \$5,445

김민규(10-12/14) 박상일(1-12) 송인근(9-12/14)
 전문자(1) 김순이(1) 전숙희(1) 임윤택(1)
 황정기(1-6) 이병열(1) 천종욱(1) 정진희(1)
 조우송(2) 황정희(12/14, 1) 신기수(1-2) 육승주(1)
 김용식(1-2) 임희숙(10-12/14) 이명란(1) 김옥녀(1)
 이은자(1) 윤성진(11-12/14) 문아영(7-12/14)
 이기하(1-12)

< 성소후원금 > \$440

박상일(1-12) 김순이(1) 임윤택(1) 김용식(1-2)
 이명란(1) 이기하(1-12) 이은자(1)

< Bishop's Appeal >

이기하(1-12)

< 감사헌금 >

윤순의 \$200

< 천주성모마리아대축일 > \$1,405

~~~~ 주님세례축일을 맞아 전신자 점심이 제공됩니다. ~~~~

- 공 지 사 양 -

- ◆ 주님봉헌축일(2월 2일)을 맞아 초축복 예식을 2월 1일 교중미사 중에 거행합니다.  
1년 동안 전례에 사용될 초와 전례용품을 봉헌하게 됩니다. 개인 기도초도 함께 축복해 드립니다.  
\* 감실초/제대초 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본당에서 세례 받으신 교우들의 대부모 명단을 3 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 1월 15일(목)부터 1월 22일(목)까지 본당신부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 2차 헌금  
1월 18일 Seminary(신학교) 후원 2차헌금이 있습니다.
- ◆ 2015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 주님세례축일 대부모/대자녀 만남의 날  
일시 : 1월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장소 : 친교실
- ◆ 예비자 입교식  
일시 : 2월 8일 교중미사 중  
\* 예비자 인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12월, 1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사진반 : 1월 18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본당 ME 모임  
1월 25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대표부부 선출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일시 : 1월 22일(목) 오후 4시  
문의 : 이선희 막달레나 510-566-0582
- ◆ 성탄 때 봉헌하신 성경쓰기노트를 사무실에 오셔서 상품과 함께 찾아가십시오.

**1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오클랜드반      | 1월17일(토)6시 | 최대연다니엘덕  |
| 2  | 유니온반       | 1월25일(일)6시 | 이규주시문덕   |
|    | 캐스트로밸리E/W반 | 1월31일(토)6시 | 허은희마리아덕  |
| 3  | 리치몬드/버클리반  | 1월24일(토)5시 | 조진행바실리오덕 |
|    | 알버니08반     | 1월24일(토)6시 | 이영길안드레아덕 |
| 4  | 라스모어반      | 1월23일(금)6시 | 최상철스테파노덕 |

- ◆ 도서 구입 신청  
성물방에서 <바오로딸>을 통해 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도서가 있으시면 성물방으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 ◆ 유럽성지순례 모집  
일시 : 4월 19일(일)~ 5월 1일(금) 12박 13일  
지역 : 이스탄불, 아시시, 로마, 크로아티아, 메주고리에  
순례비용 : \$3,401(기사/가이드의 팁, 순례 중 물, 식당에서의 물 포함)  
예약금 : \$1,501(Check 또는 Money Order)  
신청마감 : 1월 25일(일) 30명 선착순  
연락처 : 이 레이몬드 510-688-0157
  - ◆ 세금보고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베로니카(1/13) : 전진영
  - \* 안토니오(1/17) : 이동재

**주일학교 소식**

- 1월 25일 : Sunday School 개학

**안국학교 소식**

- 1월 17일 : 마틴루터킹데이(휴강)  
- 1월 24일 : 미술특강